

朝鮮朝 嶺南學派의 형성과 그 전개

李 樹 健*

I

조선왕조는 '士大夫政權'이라 할만큼 讀書儒生인 士(章甫)와 전·현직관료인 大夫(搢紳)가 在朝와 在野에서 정치·사회적 지배세력으로서 역대의 정권을 담당해 나갔다. 이러한 사대부는 士族 또는 兩班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지만, 그 형성시기는 고려후기로 소급된다. 그들은 대개 지방의 郡縣鄉吏가문에서 출자하여 경제적으로는 在地中小地主的 기반을 가진 데다가 고려후기 정치적 혼란과 北虜·南倭의 외침이 거듭되는 가운데 科擧·軍功·添設職 등을 통해 中央官人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획득한 자들로서, '能文能吏'의 조건을 갖춘 새로운 官人像을 지닌 동시에 때마침 元나라로부터 전래된 新儒學을 적극 수용하면서 麗末에 가서는 마침내 崇儒排佛과 反元親明策 및 왕조교체라는 방향으로 나서게 되었다.¹⁾

그들은 14세기말 왕조교체를 계기로 執權사대부와 재야사대부로 나누어졌는가 하면, 15세기 후반 世祖의 왕위찬탈을 겪으면서 다시 勳舊派와 士林派로 分岐되어 갔다. 특히 후자는 왕조교체기의 재야사대부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훈구파의 집권 아래 朱子學的 鄉村支配 질서와 새로운 先進農法을 향촌사회에 적용하여 원만한 '主奴'關係와 地主佃戶制를 근간으로 地域開發을 활발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촌사회의 획기적 성장과 함께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진출을 꾀하였다.²⁾

國初이래 조선왕조의 적극적인 文教장려와 선비양성책은 16세기에 접어들자 지방에서 급격한 在地士族의 저변확대를 가져왔다. 科田法의 해체로 인한 士族의 地主的 성격의 강화, 거듭되던 政變·士禍로 인한 落鄉官人의 증가, 士姓吏族의 士族化에 따른 '任內'移住 및 재지세력의 향촌지배권 장악에 따른 留鄉所·司馬所의 설치운영, 鄉規·鄉約·洞約의 제정실시, 書堂·書院의 보급, 씨족·문중을 중심으로 한 同姓部落의 발달 등 일련의 정치·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지방 士林의 형세는 16세기 중반부터 급격히 신장되어 갔던 것이다.

* 嶺南大學校 教授

1) 李佑成, 「高麗朝의 '吏'에 대하여」, (『歷史學報』23, 1964).

拙稿, 「兩班社會의 形成과 展開」, (『韓國學入門』, 대한민국의학술원, 1986).

拙著, 『嶺南士林派의 形成』(영남대출판부, 1979).

2) 拙稿, 「古文書를 통해 본 朝鮮朝社會史의 一研究」(『韓國史學』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17, 18世紀 安東地方 儒林의 政治·社會的 機能」(『大丘史學』30, 1986)

士大夫에서 士林으로 演變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중간에 비록 집권사대부와 재야사대부, 훈구파와 사림파 또는 나중에 東西·南北·老少의 당파로 나누어 지기도 했지만, 敎學과 身分上으로 본다면 모두 朱子學에 훈도된 兩班士類였다는 점에 공통의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京鄕을 막론하고 士類가 중심이 된 양반지배가 확고한 사회인 동시에 사람이라 불리는 선비집단이 그 사회의 영도세력이었다. 그 결과 士類·士林이란 호칭은 당대 최고의 영예이며, 그들의 여론인 ‘士論’과 그들의 기상인 ‘士氣’는 곧 국가·국민의 公論·元氣로 간주되어 위정자들은 이를 적극 배양, 권장해 주어야 한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따라서 出仕·출세에는 權力·財力 못지 않게 學識과 文才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결과 詩賦詞章에 능한 文士가 사림사회의 文酒席上에서 갈채를 받고 理氣·心性을 기본으로 한 道學이 학문세계를 풍미했던 양반사회에 있어서 학문적 교류와 文字(글)의 授受는 정치적 제휴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특히 사림사회에 있어서 祖先·師友 사이에 오간 文字는 곧 ‘世誼’로 간주하여 師弟, 동족·동향·동료 등으로 맺어진 인간관계 못지 않게 중시되었는데, 그것이 ‘退南’ 양학과 사이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작용했던 것이다.³⁾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으로 자리를 굳힌 性理學은 집권·재야사대부 또는 官學과 私學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정착, 보급되어 갔으며, 16세기 후반에 접어들자 사림세력의 정계 장악과 함께 政派의 분열과 동시에 인맥·地緣 및 學說上으로 점차 流派가 생기면서 東西分黨과 함께 嶺南學派와 畿湖學派로 대별되어 갔다. 15세기 후반 金宗直을 영수로 한 경상도의 新進士類를 ‘영남사림파’라 한다면, 16세기 중반 李彥迪·李滉·曹植의 학동을 포괄해서 이를 ‘嶺南學派’라 할 수 있다. 전자에서는 성리학의 수용과정에서 朱子の『經傳集註』와『家禮』및『小學』교육을 성리학의 실천윤리와 敎育 및 行身의 기본으로 삼았는데 반하여, 후자에서는 理氣心性學과 禮學을 바탕으로 한 道學을 주로 하면서 李珥, 成渾을 영수로 한 기호학과에 대칭되는 학파로서 學緣上으로는 退溪와 南冥學統을, 政派上으로는 東人 내지 南人 또는 北人의 입장을 고수했던 것이다.

李滉(1501.11~1570.12)과 曹植(1501.6~1572.2)은 同甲·同道人으로서 乙巳士禍(1545)이후에 굴기하여 東西分黨(1575)이전에 일생을 마치면서 각기 慶尙左道와 右道를 대표하여 영남학파의 2대산맥인 퇴계학과와 남명학파를 형성시켰다. 仁祖反正 이후에는 退南 양학자의 위상과 양학파의 형세에 큰 격차가 있게 되었지만, 두 학자의 생시에는 그 형세가 대등하여 양쪽을 넘나드는 학도와 관인들이 많았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서론의 바탕 위에서 퇴계와 남명 및 양학파에 대하여 간략하게 비교, 논술해 보기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론한 문제들은 필자의

3) 拙稿, 「朝鮮後期 ‘嶺南’과 ‘京南’의 提携」(李佑成교수 정년기념논총:『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上』, 1990).

기존 論著⁴⁾에서 이미 천착된 내용을 다시 요약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 수정보완된 것은 별로 없다. 다만 약간의 새 자료⁵⁾를 보충함과 동시에 기존의 관련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비판을 가해 보고자 한다.

II

퇴계와 남명 및 양인의 문도들로 구성된 퇴계·남명학파를 여러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양쪽은 서로 대조적인 면이 많다. 두 학자의 생시에도 여러 인사들에 의한 비교논평이 있었는가 하면, 후학들에 의한 논평도 많았다. 필자 나름대로 몇가지 기준에 의거 양쪽을 대비해 보면 다음 表와 같다.⁶⁾

다음 표와 같이 양쪽은 출신지역, 家系와 학통, 성품과 爲學태도, 현실대응자세 및 문인들의 세력 消長 등에 각기 특징이 있지만, 특히 지역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두 사문을 다같이 출입한 바 있던 鄭述는 宣祖의 질문에 대해 두 학자의 기품과 爲學·교육자세에 걸쳐 간명하게 비교하였다.⁷⁾ 퇴계학통을 계승하여 近畿南人學派를 집성한 李瀼은 퇴계와 남명 또는 경상도의 上道와 下道を 대비하면서 “두 학자가 다같이 영남지역인 소백산 밑과 두류산 동쪽에서 태어났지만, 상도는 仁을 숭상하고 하도는 義를 주로 하며, 퇴계의 학문은 바다처럼 넓음(海闊)에 비한다면, 남명의 기질은 태산처럼 높음(山高)에 견줄만한 것이라” 하였다.⁸⁾ 李重煥도 그의 『擇里志』에서 경상좌·우도는 토질의 肥瘠과 物産의 豐穡, 習俗의 侈儉 및 학문적·處世的 경향에까지 서로 대조적이어서 좌도는 관료지향성이 강해 仕宦이 많고, 우도는 財富을 선호한 나머지 豪富가 많다고 하였다.⁹⁾

4) 拙稿, 「南冥曹植과 南冥學派」(『民族文化論叢』2·3, 1982).

——, 「退溪李滉家門의 財産유래와 그 所有形態」(『歷史教育論集』13·14합집, 1990).

拙著, 「嶺南士林派의 形成」 참조.

5) 최근 필자가 수집, 조사한 것 가운데 琴蘭秀의 日記·雜錄, 吳健의 德溪日記, 金玪의 溪岩日錄, 鄭慶雲의 孤臺日錄 등이 특히 주목되었다.

6) 拙稿, 「南冥學派 義兵活動의 歷史的 意義」(『南冥學研究』2, 1992).

7) 『退溪全書』4, 言行錄卷8, 「李滉: 德器渾厚, 踐履篤實, 工夫純熟, 階級分明, 學者易以尋入, 曹植: 器局峻整, 才氣豪邁, 超然自得, 特立獨行, 學者難以爲要」

奇大升의 論評: 「觀李滉議論, 則地位甚高, 祖述程朱, 故其所著述, 與程朱相近……曹植氣質磊落, 可謂壁立千仞, 可以激頑立懦, 而學問則有不循規模之病矣」(『宣祖實錄』卷1, 卽位年 11월 丁卯條).

8) 『星湖僊說』卷1, 東方人文條.

9) 『擇里志』八道總論 慶尚道條. 한편 英祖4년 戊申亂을 겪은 뒤 노론계 인사들은 다음과 같이 대비 하였다.

1) 洪致中: 「上道素多名賢, 下道本土豪」

2) 鄭齊斗: 「上道卽先正臣李滉所居地, 而賊變不出於上道……賊出下道, 而下道卽曹植故居也」(承政院日記 659冊, 英祖4年 4月條)

3) 朴師休: 「下道之俗瘠悍, 上道之人質樸」(同上 660冊, 英祖4년 4월條)

4) 李壽海: 「嶺之南七十州, 左道多南人, 右道多西人, 上道多衿紳, 下道多富豪, 論議必出於上道, 起鬧每始於左道, 此是一風習然也」(同上 875冊, 英祖14년 7월條)

嶺南學派의 2大山脈：退溪와 南冥의 比較

學者 項目	退溪 李滉(1501~1570, 禮安)	南冥 曹植(1501~1572, 三嘉·金海·晉州)
지역적 구분	安東을 중심한 경상 左道 및 右道の 尚州권. 청량산·소백산	晉州를 중심한 慶尙右道 및 下道の 일부지방. 지리산.
지역의 역사적 특징	辰韓지역에서 신라로 발전. 고려태조와 밀착. 공민왕의 피란. 고려와 조선시대를 통해 중앙정부와 관권에 대한 반항사례 거의 없음.	弁韓지역에서 가야 및 신라에 병합. 후백제와 제휴. 역대정권 및 官權에 대한 저항 및 반항사례 빈발.
지역의 자연 환경과 俗尙	토질척박. 力農勤儉. 토착성 강함. 온건적 관료지향성. 학문승상.	토질비옥. 海陸산물 풍부. 貴보다 富 지향. 과격·저항적 豪強의 성향.
家系 및 妻財	眞寶縣 吏族에서 성장. 강력한 在地의 기반. 叔父代부터 文科要職 역임. 李禎(府使)→繼陽(進士)→埴(進士)→退溪(小大科·高官要職): 처가부유. 奴婢수백口. 田畠 수천두락.	昌寧曹氏의 鄉派. 한미한 在地士族. 父代文科 淸宦. 曹殷(中郎將)→安習(生員)→永(不仕)→彦亨(判校)→南冥(不應試, 處士): 처가부유.
학문적 淵源	家學 전수(叔父). 金漢啓·金安國·李賢輔 등士林派의學問的 전통계승.	家學傳受(父). 鄭汝昌·趙之瑞·金宏弼 등 嶺南士林派의 학문적 전통 계승.
宦歷 및 증직 증시 등	小大科. 内外要職. 淸宦. 左贊成·判中樞 역임. 領議政. 文純. 宗廟 및 文廟配享. 陶山·廬江書院 등 主享.	小大科 예시에 합격하였으나 중도에 과거포기. 參奉·縣監·典籤 등을 제수받았으나 끝내 不仕. 山林處士. 領議政. 文貞. 德川·龍岩·新山書院 등 主享.
교육 및 학문 자세	講學論道. 沈潛義理. 尚仁. 主理. 東方의 朱子. 學者易以尋入. 踐履篤實. 程朱에 의존. 關異사상이 강함.	강론보다는 스스로 경험에 의한 體得증시. 이론보다 실천강조. 論講에 比喻法 사용. 敬義 出處강조. 老莊·陸王學的 요소가 있음.
文 體	平易. 자상완곡. 今文. ‘織布而成匹.’	奇古. 簡潔. 左柳文體. 古文. ‘織錦而未成匹.’
詩文數 및 學問的 著述	詩 900여수. 書札 1800여통. 文集 99卷 39冊. 自省錄. 聖學 十圖 등 理氣心性 禮學에 관한 방대한 저술 남김.	詩 170여首. 書札 30여통. 文集 5卷 3冊. 學記類編 4卷. 玩文喪志. ‘程朱後學者不必著述’

현실대응과 시국관	근신·온건한 태도 견지. 人物論評과 時政得失에 함구. 외유내강적 양면성 지님.	處鄉·處世 등 현실에 대한 적극적 반응. 戚族政治의 폐해와 稅政을 비판. 不輕許人.
두 학자의 상대방 논평	畏敬하는 神交로 南冥을 평하되 ‘尙奇·好異·難要以中道’라 하면서 老莊的 일면 지녔다고 했음. 3회 서신 왕래. 相面없음.	학덕을 겸비한 당대제일의 학자로 퇴계를 평했으나 자신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함. 퇴계문도들의 현실유리적 학문적 태도와 상호논변을 두고 ‘盜名欺世’라는 시각에서 비난.
門人數 및 門人의 黨色	陶山及門錄 235명. 東儒師友錄 72명. 典故大方 304명(경북 115명 경남 26명 기타 60여명) 東人→南人→仁祖反正(西南并存)	德川師友淵源錄 69명(추가66명). 東儒師友錄 45명. 典故大方 41명(경남 51명. 경북 1. 기타 10여명) 東人→北人→大北→仁祖反正: 失脚
양 학파의 세력 消長	退溪死後 門人이 政界와 학계주도. 地緣과 학연·당색을 초월. ‘東方의 朱子’로 간주. 君王之學. 官學의 위치 지킴. 기호학과에 대칭되는 嶺南學派 주도. 온건. 체제순종적인 입장에서 기록된 향유. 서인 내지 老論집권기 강력한 재야세력으로 존재.	생전에는 대등했으나 南冥死後 己丑獄事에 연루된 門人 있고, 壬亂때 경상우도 및 下道 의병활동 주도. 亂後 南人 영수인 柳成龍 실각시킴. 宣祖末-光海시대 남명학파의 전성기 및 분열기. 仁祖反正후 수난기. 戊申亂(英祖4년, 1728)에 가담. 가혹한 보복당함.

退溪는 「自古로 聖賢이 後世를 위해 ‘淑人心·崇正學’의 규범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立言垂後’에 힘입어 기반이 마련된다. 그렇지 않다면 孔孟程朱와 같은 성현도 후세에 무엇을 근거해서 그 端緒를 찾고 그 학문을 稱述하겠는가」¹⁰⁾ 하면서 평생 학문에 침잠, 많은 詩文과 著述을 남겨 동방의 朱子란 호칭을 받았지만, 南冥은 평소 「詩를 읊은 것이 玩物喪志의 尤物」¹¹⁾로 간주한다든지, 「程朱後, 學者不必著述」이라는 태도를 견지한 결과 讀書筋記인 「學記類編」과 약간의 시문을 남겼을 뿐이다. 處身·處世에 있어서 두 학자는 다같이 辭受·出處를 엄격히 따지고 또 연속되었던 士禍에 지친 나머지 ‘難進易退’의 입장을 취하려 했지만, 퇴계는 大小科擧를 거쳐 고관요직을 두루 역임한 끝에 明宗末·宣祖初에는 정계와 학계에 주도권을 장악한 신진사류의 영수로서 朝野의 숭앙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따라서 당대를 주름잡던 학자와 官人들이 대개 그의 문하를 출입한 데서 마

10) 『退溪集』卷12, 答柳仁仲論趙靜菴行狀別紙條 「自古聖賢所以能爲後世淑人心·崇正學之模範者, 專賴立言垂後爲之地耳. 不然, 雖以孔孟程朱之盛, 後世何所從. 而尋其緒述其學哉」.

11) 『南冥集』卷2, 答成守琛書 「嘗以暇詩, 非但玩物喪志之尤物, 於植, 每增無限驕傲之罪, 用是廢閣諷詠, 近出數十載」.

침내 퇴계학파는 그 기반이 경상좌도에 국한되지 않고 거의 전국을 포괄하게 되었다. 또한 퇴계는 「未嘗言人過」하며 「接對之際, 未嘗言及時弊」하는 등 일생을 謹拙·審慎하여 온건하게 처신하였으며 또 ‘尚仁’과 主理的 경향을 견지했기 때문에 퇴계학파는 東西 및 南北分黨과 같은 政爭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대답은 피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南冥은 중도에 과거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간혹 ‘遺逸’로 천거되어 六品以下の 閑職을 제수받았으나 끝내 山林處士로 일생을 마쳤다. 한때 承召 上京하거나 잠시 기호지방을 여행한 적은 있었으나 그의 足跡은 三嘉·金海·晉州 山淸 등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문도들도 자연히 경상우도에 편재되어 있었다. 그는 대쪽같은 성품으로 壁立直行하는 처신을 한 데다가 「不輕許人」·「不妄交」한 나머지 交友관계도 넓지 않았다. 그는 ‘敬義’와 反躬 實踐을 行身·爲學之道로 삼았던 것이며 志行과 言動이 일치하지 않은 당시의 학자들을 ‘盜名·欺世’하는 자라 하여 매도하였는가 하면, 때로는 傍若無人的인 호탕한 기상도 있었다.¹²⁾

南冥은 일생을 초야에서 보냈지만 결코 현실을 망각한 은둔자는 아니었다. 그는 수차의 上疏에서 戚族政治의 폐해와 胥吏들의 橫暴를 지적하고 획기적인 변통과 잘못된 世道를 挽回해야 한다고 시종 솔직하고 과격한 言辭로써 直諫하였다. 그와 같은 尚義·主氣的인 현실대응자세는 결과적으로 그의 문인들로 하여금 壬辰倭亂이 발발했을 때는 모두 倡義·討賊의 대열에 나서게 하였고, 不義를 보고 참지 못하며 현실에 대한 저돌적인 자세는 마침내 晉州의 淫婦사건에 連累되었던 것이며, 그의 수제자격인 崔永慶과 鄭仁弘이 각기 己丑獄事(1589)와 仁祖反正(1623)에서 獄死 또는 처형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III

조선시대 학자 또는 학파에 대한 論評은 당대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주로 후대에 와서 정치세력의 消長과 학문·사상계의 변화에 따라 학연과 학통이 변질되었던 것이며 또 학문적인 평가와 人物評도 그 추종자들의 政權得失에 따라 좌우되었던 것이다.

12) 惺齋(琴蘭秀)日錄(필사본) 辛酉(明宗16년, 1561) 4月 18日條「(琴蘭秀)與李訓導金生員用貞及權明叔鄭肯甫, 歸謁南冥, 坐于雷龍堂舍(三嘉吐洞 소재), 各持酒, 酒酣, 南冥先唱歌, 勸坐中皆歌, 不用古歌, 而使皆自作, 言語峻絕, 傍若無人, 果如前所聞也, 有超越之氣, 而小渾然之意……又云有老君子, 無少年君子, 吾見先後變遷, 白而黑, 黑而白, 小不相近, 雖曰君子人也, 吾不信也云云……又曰有欲告退溪者矣, 君見湖南諸生與退溪辨論性理之說乎, 前賢論釋至矣盡矣, 後生不及於前賢遠矣, 尋究前賢之言, 而行之力不足焉, 不求行前賢之言, 而尋高論性理之學, 吾不知其可也, 問者雖問, 退溪則止之可也, 退溪亦爲之, 吾所不取, 或請余亦爲之, 吾於前賢之言, 未得着手, 何暇更論性理乎, 君以是告退溪」

退溪는 당대 또는 후대에 西人과 北人쪽 인사들로부터 「程朱에 의존하는 ‘依樣性’과 難進易退의 소극성과 ‘退嬰性’」을 지적, 비판받았지만, 그의 평생 사업을 오늘의 시각에서 살펴볼 때 그는 당대 제일의 성리학자로서 신진사림을 영도하면서 사람정치의 정착을 위해 혼신의 정력을 쏟았다고 볼 수 있다. 퇴계의 靜菴과 晦齋 行狀 찬술과정과 書院보급운동에서 특히 그러한 면을 살필 수 있다. 道統문제는 벌써 己卯土禍를 전후한 시기의 사람에 의해 제기되어 정통성리학의 계보가 「정몽주-길재-김종직-김굉필·정여창」으로 이어졌고 仁宗朝에 趙光祖를 김굉필에 연결시킨 데 이어 明宗末 퇴계에 의해 회재가 추송되면서 東方四賢의 陞廡운동과 함께 도통이 확정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兩賢의 行狀을 찬술할 당시 정계와 학계에 있어서 퇴계의 위치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다. 퇴계는 훈척세력의 퇴조와 士林政治의 성립기에 임하여 첫째, 己卯·乙巳土禍때 피해 사람의 전철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주도면밀한 자세로, 몰락해가는 훈구세력에 대신할 사람정치의 확립을 위해 온건, 점진적인 대응자세를 견지하였다.¹³⁾ 둘째, 己卯士林에 의해 이미 계보화된 道統을 정암과 회재로 잇기 위해 兩賢의 行狀을 찬술함으로서 東方四賢의 위치를 확고부동하게 함과 동시에 훈구세력에 대한 士林派의 정통성을 강조하였다.¹⁴⁾ 그것은 바로 앞으로 정계와 학계를 주도할 사람과의 도통을 확립함으로써 君臣·朝野를 막론하고 異議가 없게 하였다. 셋째, 사람의 일차적 세력기반인 鄉村社會를 士林 주도하에 두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즉 성리학적 향촌질서와 사회·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향촌規約을 제정, 실시하고, 그 문인들과 함께 서당·서원을 보급시켰던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퇴계는 당대 또는 후대인으로부터 소극적·퇴영적 처신·처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의 기본 입장은 종래 4대사화때마다 선량한 士林이 당한 일방적인 피해를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사람정치의 도래는 기정사실인 만큼 사람정치가 설 수 있는 토대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는 보다 차원 높은 經綸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南冥學은 경상우도(下道)라는 역사적 전통과 지리적 환경 및 선배학자들의 영향하에서 형성되었던 것이다. 金宏弼·鄭汝昌·趙之瑞를 비롯하여 金大有·郭珣·申季誠 등과 吳健·崔永慶·鄭仁弘·郭再祐 등 남명의 師友門人관계를 살펴보면 기질·사상·학문·처세 및 文體에 이르기까지 공통의 특징을 갖고

13) 『退溪集』卷16, 答奇明彦 및 同書卷9 答朴參判(淳) 참조.

14) 拙稿, 「晦齋李彦迪家門의 社會·經濟的 基盤」(『民族文化論叢』12, 1991), pp. 65~66 참조.

있었다. 그러한 특징에는 ‘老莊’과 ‘陸王學’의 일면¹⁵⁾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남명학은 현실적·정치적 기능이 약화되고 반대로 思辯的인 변쇄한 理氣論과 禮學 중심으로 흘러가는 학풍에 대하여 비판과 반성을 촉구한 데서 일정한 시대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퇴계를 추종하던 신진사류가 명종·선조교체기에 정계와 학계를 주도하면서 시국을 낙관하고 있었다. 남명은 그러한 현실안주적인 태도와 실천이 수반되지 않은 학풍에 대하여 利祿만 탐내고 盜名·欺世하는 행위라 하여 통렬히 비판하였다.

끝으로 한 가지 附言할 것은 南冥과 來菴이 학계 또는 정치사에 미친 是非와 功過에 대한 평가문제이다. 남명학과의 敬義사상과 務實力行 및 과단성 있는 決行性은 당시 진부한 정계와 학계에 청량제가 되었고 그러한 특징은 壬亂의 의병활동에서 유감 없이 발휘되었다. 그런데 남명에서 내암으로 이어진 남명학과 및 내암의 학문적·정치적 한계를 거론할 때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선 지적될 것 같다. 첫째, ‘남명의 경우 「程朱後學者不必著述」이라 한다든지, 退高의 四七論辨과 같은 학문적 논쟁을 盜名·欺世로 간주한다든지, 진주의 淫婦사건 등으로 인한 문인들의 ‘毀家·黜鄉’ 행위 및 李楨과의 절교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암의 경우 出仕후에는 激濁揚清的인 言行으로 당쟁을 격화시켰는가 하면, 北人 집권때 南·西人에 대한 철저한 배격과 北人專用 자세, 임해·영창·인목대비문제에 대한 討逆일변도로 光海정권을 파탄으로 몰고간 책임, 특히 사림정치하에서 南·西人の 정신적 지주인 晦退와 牛栗을 싸잡아 공격하는 데에서 大北의 고립을 자초하게 된 책임 등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西人들이 남명학파에 대해 ‘見理不明’에서 여러가지 과오를 저질렀다고 평¹⁶⁾했듯이 남명학파의 역사적 위상에 대하여 明暗兩面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15) 陸王學에 관한 서책이 16세기 중엽 중국으로부터 전래되는 과정에서 退溪는 그것을 단호히 배척했지만, 그의 문인인 鄭琢과 柳成龍 등은 그러한 서적을 買來했거나 탐독한 적이 있었다. 「惺齋集草稿」與趙士敬(穆)「且近與鄭子精(琢)累次相從, 語及赴京時陸集買來事, 子精以謂吾之所以買來其書於燕肆者, 蓋欲詳知其學, 非欲公信其道, 而聞士敬(趙穆)以此謂余, 此意未知云云」

「柳而見(成龍)又對余盛言, 士敬丈寄我詩中, 有鵝湖二陸之語, 以吾兄廻比之陸氏之鵝湖, 以吾兄弟比之於二陸……」

拙稿, 「西崖柳成龍의 社會 經濟觀」(『大丘史學』12·13, 1977) 참조.

16) 「承政院日記」제659冊, 英祖 4년 4월 3일條.